

무엇이 우스운가. 무엇이 기쁜가
세상은 항상 불타고 있고 그대들은
어두움에 쌓여 있는데 어찌 빛을 찾지 않는가.
(法句經·노모름 104절)

東大新聞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61 (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제 113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 (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9월15일 (수요일) [1]

3자회담 성사여부 귀추 주목

총학 “재단·학교 성실한 자세로 대화 응해야” 결렬 될 경우 비상총회 통한 파업사태 우려돼

학내사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총장과 학생회 대표들의 면담 이후 3자회담 오는 21일로 상정돼 있는 학생총회 성사여부에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앞으로의 재단혁신투쟁방안 토론을 통해 3자회담추진과 이사회 개편문제, 동국발전협의회의 실질적 방안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런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파도론의 내용으로 '요구안 확정과 실천형태의 결의'를 결정했으며 비상학생총회때 실천형태에 대해서는 총파업, 또는 시한부 파업등이 논의됐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7일 있을 3차 비상학생대표자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총학생회의 3자회담 제안과 관련해 학교당국은 우선 총장과 면담이후 3자회담을 갖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지난 13일 총장면담을 오는(15일) 오전 중으로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는 21일 있을 비상학생총회 성사여부에 따라 3자회담 추진과 이사회 개편, 동발

협의 실질적 방안등을 지적이므로 보인다.

또한 총학생회는 오는 16일 3자회담 추구를 위한 학생총회 성사여부를 도서관 앞에서 갖고 3자회담의 성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학생총회 안전확정등을 논의하기 위한 3차 비상학생대표자회의를 오는 17일 갖고 최종요구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석림동문회는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건학이념 구현과 동국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석림동문회는 이번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재단, 학교당국,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 학생회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한편 최순호 총학생회장과 류기찬(역교 4) 사범대학총학생장은 오늘부터 학자투 완전승리와 학부위 혁신을 위한 구교 결사 대대전에 들어갔다.

최총학생회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재단혁신투쟁 완결승리를 위해 21일 비상총회사후, 재단혁신 요구안 쟁취, 학사일정 전면거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있을 비상학생총



△학생총회안전장정·학부위 혁신등을 안건으로 2차 비상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14일 동국관(M409)에서 진행됐다.

회전까지 3자회담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학사일정 전면거부 등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측은 학내사태에 대한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23일 새로 영입된 재단이사 3인중 교육부에 명시된 '이사인 1인'이 교육경력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광명수사사의 2인은 교육부로부터 승인거부된 상태로 이사진개원에 관련된 진통을 겪고 있다.

수강신청 정정률 여전히 높아 강의계획서 등 근본대책 마련돼야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93학년도 2학기 수강정정률을 지난학기보다 약 7% 정도 낮아진 52.89%로 집계했다. 수강정정률을 단과대 별로 살펴보면 36.59%인 이과대가 가장 낮으며 야간강과가 65.89%

94년 입시요강 일부 확정 일부학과에 한해 특차 전형

입시관리위원회(위원장=정병조·국민윤리)는 지난 13일 교수위원회 회의실에서 94학년도 입시요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입시일자와 장학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은 일정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회의에서는 입시일자와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인 정병조 교무처장에게 위임했다.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일부학과에 한해 특차모집

집을 하며 특차모집을 한때는 문·이과 교차지망시 감점이 된다.

한편 특별전형 교차지망시 감점폭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전형에서는 교차지망시 감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야간강과 각과 정원의 40%까지 산업계 특별전형을 실시하며 94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정확한 입시일자와 신입생모집요강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시한인

오는 20일 이후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눈치를 삼하게 보고있어 정확한 입시 일자를 잡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정확한 전형 일자를 밝히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교 뿐이어서 오는 20일 까지 각 대학의 눈치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보조인사 개편

학교당국은 여학생부처장에 박명희(가정교육)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조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편된 보직인사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 △연습관리소장=오정수(인학) △신입기술연구소장=이문보(건축공학) △블로그 미술문화연구원소장=문명대(미술학) △스포츠행정학과장=함영상(의학) 이상 8명25일자. △한외과대학장=문준진(한의학) 이상 9월1일자.

사격부 단체우승

경주캠퍼스 사격부(코치=광방호)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태릉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대회에 참가해 공기소총과 소구경3자세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여학생부처 특강 개설 관소리·사진기술 등 다양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는 2학기 특강접수를 오는(15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수강과목으로는 ‘영상예술의 이해’, ‘사진기술’, ‘태니스’, ‘관소리’, ‘영어회화’가 있고 접수는

계산관 1층 여학생부처장실에서 한 강좌당 3천원씩 신청받는다.

이번 특강에 대해 박명희교수는 “관소리와 사진기술 등 이전에 없던 강좌를 신설했고 태니스를 제외한 다른 과목의 수강인원을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강은 오는 10월부터 일주일에 1시간 10주동안 하게되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은 24일 계산관 1층에서 있다.

한편 여학생부처는 지난 8월 말경 들여온 벨트트라이, 바이카, 러닝셔츠 등 헬스기구 6대를 계산관 2층 운동실 코너에 배치했다.

보리수

“죽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은 왜 돈이 많지요? 나랏 돈을 탐내로 쓰기 때문인가요? 금품살탈제나 공직자 재산공개다 하고 연일 법적인 신문과 TV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국민학교 4학년 짜리가 공급된듯 먼진 질문이다. 엉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순진한 의문이며 느낀 것이다. 아직 진행중인 우리 사회의 사정·개혁작업은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관심사가 되어 있을 정도이며, 그만큼 이 일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어두

운 면 따지 못한 면에만 너무 매달려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키워온 악의 뿌리가 너무 깊고 커서 그것을 뽑아 내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힘이 드는 것일 터이지만, 이제는 좀 상쾌한 주체로의 전환을 보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청정함에 대한 믿음

망라하는 속성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정의감이 투철하지 못한 소치일까. 아니다. 그래서 사가 아니다. 세상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또다

른 면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운다. 처럼상정(處染淨)이라 말하듯, 더러운 속에서 그것이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한다. 인간의 본성이 곧 그리함에 비유되는 연꽃은 그래서 불교의 꽃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어디 철저히 너러만 있더라. 인간은 더러운 속에서 또 한편 그것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사실 우리를 인간에게 그런 신뢰와 희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인류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져 을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한 용서, 부패한 것에 대한 청신에 못지 않은 인간 본성의 청정함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격려하고 북돋아 가는 또 다른 의미의 개혁작업에도 아울러 눈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李 達 春

불교를 뽑아내듯 연못에서 연꽃을 뽑아버리는 해피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작태에 상관 없이 청정함을 시현하는 연꽃에의 사모(思慕)는 한결 같다.

정각원 ‘정각도량’ 창간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은 서울·경주 정각원 통합 포교지 ‘정각도량’을 지난 1일 발행했다.

정각도량 창간에 대해 오복원 이사장은 “올바른 마음으로 지혜와 예지를 가지고 불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격려했다.

또한 민병천총장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정각도량이 수행

하게 됐다”고 축하했다. 창간호 정각도량에는 한의학, 불교사학 입장에서 조명한 정각도량 ‘불교와 한의학, 삼귀의 의의와 삼보의 가치인식’을 다룬 교리강좌 ‘삼귀의, 부처가 설립한 8만4천 범문을 중국의 천태지대의대사가 설정한 오시교관에 준해서 여러 경전을 소개한 경전의 세계 화엄경 등의 학술내용이 실려있다.

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같이 높은 수강신청 정정률과 관련해 중앙교육과정 학생위원장 남철우(동경4)군은 “학생들이 신청을 쓰지 않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도 학교당국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앞으로는 높은 수강신청정정률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학기 보다 약간 줄긴 했으나 아직도 50% 넘는 높은 정정률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출석부나 나오지 않는 등 원활한 학사일정 진행에 문제

학술상 공모 기획광고

동국학풍, 우리가 이어갑니다

제31회 학술상 작품 모집

동국의 학풍은
상징물 코끼리처럼
우직하고 겸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서른 한돌을 맞은
본사 학술상 또한
87년 동국학풍의 큰흐름
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뒀은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 응모요령: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백자원 고지 60매 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술논문예 포함)

- ◇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 ◇ 논문제출:1993년 10월 4일 ~ 7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 입상작발표:1993년 10월 27일 本紙 紙上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동대신문사

지난 8월 5일자로 교육부에서는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 교육의 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급원장기위원회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실시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분야 내외개방 대비 국내법규 정비의 측면인데 그 주요내용은 95년 전문강습소, 96년 일반강습소 개방 및 96년 이후부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 관계법규 정비 및 국내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교육개방이라 할지라도 과연 교육부가 앞으로의 교육개방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왔던가의 문제와 영세한 학원 및 대학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기우일가?

문제를 대학만으로 국한시켜 보면 단적으로 국가보호 및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이 아닌, 열악한 재정상태에 허덕이면서도 대학교육기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교육부에서는 점진적, 선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자본력과 오랜 역사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은 아직 자생력을 갖춘 만한 구조적, 제도적 조건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교육부에서는 점진적, 선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자본력과 오랜 역사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은 아직 자생력을 갖춘 만한 구조적, 제도적 조건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생력을 시급히 길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급변 대학교육협력회의에서 밝힌 내년부터의 대학평가 인정제 실시는 대학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교육여건시설, 재정상태등을 일정기준에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차등적용해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대학발전을 꾀한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학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여건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왔던 우리 대학들이 이를 계기로 내적 교육여건인 교수확보율이나 실험기자재 확보율, 강의수준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평가인정제는 평가결과가 곧 대학지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중소대학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즉 이 제도가 실시

되는 의미에서 볼 때, 또한 미국, 일본등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시행해오므로써 대학의 질적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볼 때 대승적 경지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 주체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대학평가인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평가지표(교수 신규채용율, 실험실습 설비율, 도서관보유율, 재단전입금 실적등)의 획일적 적용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에 반해 서강대의 경우 13억(학교운영수입의 6%), 성신여대의 경우 8천만원(학교운영수입의 0.6%)에 불과한 재단전입금을 투자받으면서 보듯이 사립대간의 빈부격차 문제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적 팽창활동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동일한 기준을 각 대학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대학자체평가 보고서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공대생들이 가건물에서 실험을 하고 충분한 연구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2년 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에 대한 대학평가 결과 상위권에 속한 고려대, 연세대, 한국여대의 경우 연구시설기준비 보유현황(전체 학과)을 보면 연세대 379%, 고려대 344%, 한국여대 216%에 불과한 것이다.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급변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확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사립들이 이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학평가 인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평가기준의 적용을 국립대학과 사립대, 사립대내부 규모, 각 대학별 특성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세째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객관적이고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 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 진다면 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교육정책의 수립에 살아남을 수 있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평가인정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원웅
민주당 국회의원·교육청소년위

격차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시급

대학 평가 인정제 실시 파장

되던 대학의 평가수준이 낮을 경우 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대학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해 실시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최근 총학생 세미나에서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94년이나 96년이나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사실에서 중소대학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평가인정제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렀다. 그러나 다가오는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지금 현재 정부의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92년 4백억원으로 전체 사학운영경비의 2%에 불과한데 반해 국·공립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91년 4천 6백32억원으로 국·공립대학 재원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립대간의 빈부격차의 문제로서 포괄적지원에는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포항공대의 경우 91년에 3억 3천원(학교운영수입의 60.3%에 해당)의 재단전입금을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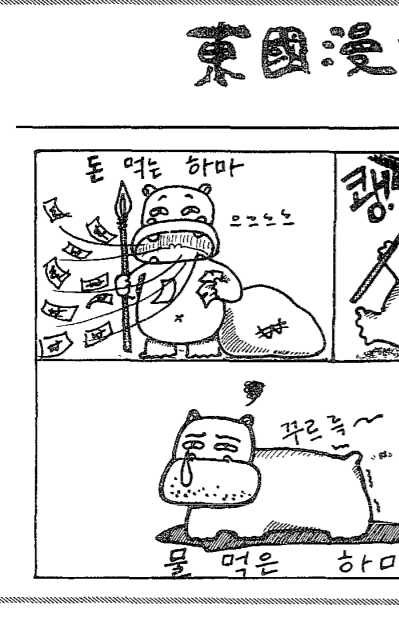
이 갖춰진후 본업에 도입 스핀업 실시전까지 잠정적으로 한의사에 게 한약조제권을 주되 지금까지 한 약을 다루었던 약사에겐 조제를 허용한다는 글자의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한의학회 뿐만 아니라 약사측에서도 즉각 '법'내상에 맞지 않는 형평없는 처사라는 반대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한의학회측은 더구나 스스실상 약사의 한약조제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어긋나는 무리한 한 방의약분업을 서두르는 잘못된 방

기부결의 찬반 투표에 들어가 과반 수 찬성으로 재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경희대 한의학과를 비롯한 전국 11개 한의대 학생들이 1학기 법정 수업일수 만료와 학기말 시험기부 로 인한 집단유급이 교육부 세칙과 학칙에 따라 확정시 되고있는 상황에서 분교 역시 유급대상자 인원을 교육부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한의대 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는 학교측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이를 막기

집단유급위기...한의대 사태 진단

장기적으로 치닫고 있는 한의대 사태가 지난 3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후 또다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혼미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본교 한의과 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가 현실화 되고있다.

지난 7월 7일 약사법 개정방안의 심의조정을 위해 마련된 '약사법 개정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 안은 스리사의 진료와 약사의 투약을 분리하는 투약 분리시책이란 △양방은 2년후, 한방은 실시여건



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발표된 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2층시안 광장에서는 한의대학생·한의사 2천5백여명이 '한 의상행진'이라는 학교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대 대의원의 의장 김봉수군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도 아닌 약사에게 집단유급까지 내포하는 임의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고 한 의학 발전을 도외시한 행태"라고 말하며 스한의학 발전방안의 구체적 제시 스철약의료보존 실시와 한약규격화 및 연구기관설치등의 근본방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까지 개진되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이 확고해 질때까지 '유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한의대 학생연맹(의장 = 조중제·동대)의 15일 경희대 상경부청에 합류, 보사부 합의방문 등의 선진행위를 통해 전국 11개 한의대와 공동대연선을 펼칠것임을 표명했다.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에 반발해 일어난 일련의 한의대 사태는 기록권을 보호하려는 한방측과 생존자원의 자구노력을 하는 약국간의 '밖으로 싸움'이라는 일면여론의 인식 이전에 약사법 개정과 해결책 모색에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교육부·보사부 해결대안 제시해야

못한 보사부의 행정편의위주사고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유급결정에 관한 각학교측에 전담했음도 교육부의 이후 방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교육부 대학학과의 관계자말에서 볼수있듯이 집단유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담당행정부서인 교육부의 모습은 책임회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견줄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른 현실에서 집단유급 및 이외의 다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보사부·교육부 및 각 행정부서, 관계단체들의 책임있는 해결의지와 실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재환 기자)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삼성은 「세계 1급품질」을 위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국제화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품질 최우선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15만 삼성인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품질 최우선 경영」실천을 위한 삼성인의 혁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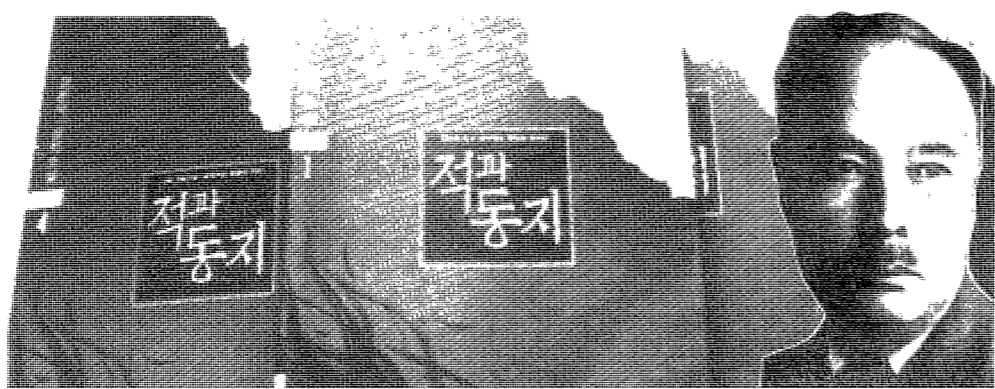
- 조기출퇴근제 실시 -기초의 업무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7시 출근, 4시 퇴근으로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초관리 경영.
- 임원 현장근무제도 -현장을 아는 경영, 고객과 호흡하는 경영의 실천을 위해 삼성의 전 임원 주4회 현장 근무.
- 라인 스톱제도 -삼성의 제품은 삼성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불량 발견시 전 생산라인 정지후 불량요인 제거.
- 녹음 회의 -형식에 얽매는 보고서를 없애고 모든 회의를 녹음으로 대체하여 KNOW-HOW 축적.
-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발전 인식, 과감한 기술지도와 자금지원.



◇강준식 정치소설 '적과동지'에 나타난 '증언문학'

영웅아닌 민족에 초점 '정통 역사소설'

편지자는 작가에게 '적과 동지'의 집필동기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글을 전개하기에 앞서 작가는 먼저 문학에는 '증언문학'과 '증언문학'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적과동지'는 방전구조를 막아보려다가 좌절된 여운형 그룹의 이야기를 축으로 전개되지만, 그 관심사는 여운형 개인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문학의 주류를 이룬 것은 구원문학에 대해서는 그 설계가 무엇인지 진술할 것이지만 증언문학에 대해서는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 풍토에서는 증언문학의 전통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구원문학은 문학이 개인의 구원을 모색할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주로 개인의 실존문제를 테마로 다룬다. 이에 반해 증언문학의 관심은 집단의 운명에 쏠려 있다.

증언문학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성경이다. 성경의 관심사는 개인의 차이를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 전체의 운명으로 향한다. 이것이 구원문학과 증언문학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증언문학이 작가가 우연히 발탁한 개인의 운명이나 민족의 운명쯤 되면 그 집필동기도 결코 우연일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의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연한 동지에서가 아니라, 민족과 인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성경작가들을 통해 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언문학에서는 자연 그 집단 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제를 이루게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적과 동지'는 바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 증언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리는 것도 민족전체의 운명이다. 작품은 여운형이라는 개인을 통해 전개되지만, 그 관심사는 여운형 개인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운명으로 향한다. 민족전체의 운명에

해방전후 분열 통합 문제 사실묘사 문학적 감동보다 비판·예언기능 중시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는 구원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을지언정 현실이나 있었을지언정 과거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허구를 통해서 문학적 감동이나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증언문학이 지향하는 민족의 운명·치혜·교훈·경멸·비판·예언 같은 것은 구할 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학을 하면 자연 민족통일의 테마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보안법의 대상이었다. 이 결과 우리의 증언문학이나 역사소설은 초기부터 민족운명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피하여 야담류의 역사 소설은 따라서 증언문학이 줄 수 있는 비판적인 기능과 예언을 상실하여, 결국은 문학적으로도 못지않게 된다. 어찌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항간에는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때때로 주인공에게 과거의 시대적 옷만 입혀 작가를 편사대로 '있을지언정 과거'를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 이런류의 '꾸민 과거'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소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대소설'이라는 용어로 엄격히 구분해 부르고 있다.

아이기 보다 나는 점이 있었는가. 또는 신라가 3국을 통일할 때 바다를 넘어 일본을 정복했다는 식으로 허구적인 사실을 그린다. 거기서 무슨 역사적 교훈과 빛을 얻을 수 있었는가. 따라서 증언문학이나 역사소설에서는 사실과 사료(史料)의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 작가가 증언문학 또는 역사소설을 쓴다 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고 하는 -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고 하는 엄숙한 행위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원래 그가 다루고자 하는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냉정한 것으로서, 결코 작가의 회색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항간에는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때때로 주인공에게 과거의 시대적 옷만 입혀 작가를 편사대로 '있을지언정 과거'를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 이런류의 '꾸민 과거'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소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대소설'이라는 용어로 엄격히 구분해 부르고 있다.

밖에 없다. 작가는 한반도가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닌 국제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적인 통일의 국면은 결국 해방당시와 아주 흡사하게, 유엔을 통한 남북통일의 형태로 다가올 수 밖에 없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는 분단의 원인이었던 해방전후 시기에 과연 우리 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하는 점을 살피고, 그 진실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증언문학의 형태로 복원정리해 보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업을 따로 갖고 있으면서 산재한 사료와 증언을 취재하는 것은 계획보다 들었다. 그 것이 모두 7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사료들을 문학적으로 형식화하는데 다시 4년여가 걸렸다. 이렇게 해서 '적과 동지'가 나온 것이다.

당시를 연구해보면, 외세를 위시하여 사실은 민족의 분열을 부추기고 조장하며 추구한 세력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구나 앞으로는 통일을 부를 것이라고, 각 세력이 추구한 방향은 결국 통일의 방향으로 치닫고 마는데, 무세력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러한 흡수통합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영구대립 또는 전쟁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과 동지'는 얼핏으로 보면 6.25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해방직후에 수없이 되풀이되었으나 좌절되고만 좌우 합작과 민족통일전선의 막대한 골목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역사는 절절 감하고 있다. 물론 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개재되어 마련되는데, 6.25 또한 전략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민족통일전선이 막대한 골목에 부딪혔다는 심리적 요소도 내적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작가는 강조하는 것이다.

통일은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전경의 이 시대상황 속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이 부단히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어주는 민족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적과 동지'가 공중의 바탕 위에서 상공을 극복해나가는 행진 여운형 그룹의 민족통일투쟁노선을 추적해나, 왜 그것이 좌절되고 말았는지를 살펴본다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운형 그룹은 말하자면 방전구조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과 갈라죽은 사람들과이다. '적과 동지'는 그 이야기를 축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내적인 메시지는, 이제는 그 수레바퀴를 뒤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다.

강준식 (소설 '적과동지'작가)

新 환경문제 3. 환경마크와 재생상품



◇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대학로에서 열린 '환경마크'와 '재생상품' 문화 한마당 가운데 '환경마크'와 '재생상품' 부스 모습

같은 품질의 상품을 값싸게 구입하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방법이 있을까?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폐품을 활용한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마크가 바로 그 해답이다. 기업에 의해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재생상품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도 공업진흥청의 품질마크에 합류된 제품에 한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품질보증표시이기도 하다.

환경청은 환경마크제도가 아직 소비자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상품목이 적어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가 없는 것과 품질이 값고 가격이 비싸거나 오히려 선택도 불구하고 재생상품이라는 정쟁해하는 소비자의 의식도 변화가 와야하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올해 주요도시별로 환경상품전시회를 열고 백화점의 협조를 얻어 환경상품 상설매장 장수도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환경마크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상품목·홍보 부족... 품질보증 외면당해

분사제품 등 4개 품목에 한해서 실시됐다. 여기에다 울타리 유아용 철거기구, 마개부착형 알루미늄제 제품, 플질약형 수도꼭지, 폐식용유, 재생비누 등 8개 품목이 추가됐다. 올 1월말 현재 환경마크가 사용되고 있는 재생상품은 모두 387업체 87개제품 재생종이 제품으로는 재생노드, 명함 등 15개업체 20개제품이 있고, 재생화장지류는 부림제지의 코주부화지류 등 10개업체 12개 제품이 있다. 또한 재생화지류 제품으로는 열매비이, 정화지 등 2개업체 4개 제품이 있으나 이들 제품은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열매비이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분사제품에는 헤어스프레이, 무스 방향제 등 12개업체 51개 제품이 있다. 이들 제품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대신 LPG를 분사제로 사용한 것과 무거운 용기대역 여러 차례 펌프질해 분사하는 압축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재생상품 가운데 재생화장지류는 마크를 붙이기 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으나 열매비이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류는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부처에 따르면 재생화장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배(22배) 증가해 팔려 무척전인 9년 같은 기간에 팔린 3배(19배)보다 3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열매비이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류는 부처 뒤 판매량이 23만천개로 부처전인 28만8천개보다 19%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수입자 유화에 따라 값싼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와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높아지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리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리필(Refill)제품이란 소비자가 용기를 보관하면서 내용물만 교환해 쓰는 상품이다. 일회용 상품이 급증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리 리필 운동은 본격화됐다. 처음에는 불면, 칼통 문구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다가 최근에는 음료수, 화장품, 세제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 리필제품을 사용하면 용기를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다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의 물건은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국내에서 리필제품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은 화장품업계다. 테평양화학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88년 이후에도 한때 메이크업 제품을 리필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판매부진으로 중단했다가 작년말부터 다시 생산하고 있다. 또 제일제당의 주방제제과도 기존 가격의 20~30%인 리필제의 제품을 비롯해 섬유유연제 등 3개제품을 내놓았으나 토크 키도 급진 2월부터 식품주방제제를 리필식으로 생산해 플라스틱 용기의 동일규격 제품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직원에서 선의로 시작한 리필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제품이 리필제품화 돼 자원낭비, 환경오염을 막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홍혜란 (환경운동 연합 간사)

동막로

경주캠퍼스에도 드디어 노천강당이 착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엔 착공될 노천강당은 일부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과 관계기관의 직원을 머릿속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노천강당이요! 착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천강당이 어떤규모와 형태로 어디에 자리잡게 될 것 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노천강당을 주 활동무대로 이용하게 될 때, 세분화 등 동아리회원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나 마찬가지이다. 관계자가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노천강당은 1층에 60평(반지)이 있다.

노천강당



6m) 정도의 원형무대가 2층에는 조명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스스로만 이 판단할 뿐 이를 학우들에 홍보하고, 이리하듯 으르렁하는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할 활동은 보이고 있지 않다.

7천학우가 주인되는 열린공간으로서 특히 문화공간이 부족한 경주캠퍼스에서는 문화부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될 노천강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우들의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회와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부터라도 홍보작업에 나서서 여러학우들이 원하는 노천강당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야 할 것이다. 학생회 간부 및 명의 등록금이 아닌 7천 온방을 학우들의 등록금 앞에 두고 학우들과 투쟁했던 등록금 합사의사합이기에. (김태성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NEWTEC VESA 486SX 119만원.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VESA logo,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PU, HDD, and Price, and a list of authorized dealers across various cities.

학복위 의혹

공개특감실시-혁신안 상정

감사선정주체 오는 17일까지 접수받아 선임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

학복위비의혹 파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공개특감실시와 학복위 혁신안 논의 등 구체적 진상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표자들은 학복위문제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와 학생대표자회의가 해결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개특감실시와 이에 따른 사정사항을 논의했다.

공개특감실시에 대한 토론에서는 감사선정주체와 원칙에 대한 주 골자를 의결했으며 구체적 세부사항을 진행할 감사선정주체와 감사자 선정, 비용등의 문제는 오는 17일 상정된 3차 비상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학복위 문제와 관련된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원동의로 통과된 공개특감실시와 이에 따른 감사자 선정주체의 역할과 선임방법, 감사자의 자격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자 선정주체는 오는 17일 오전 12시까지 총학생회실에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접수받아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임키로 했으며 감사계획에 따른 사정사항을 논의하고, 감사자선정, 결과 보고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감사선정주체가 선정할 감사자자격기준은 공인자격범위로 경력 10년이상으로 실제감사실무능력을 갖추고 국공립비영리단체에 감사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키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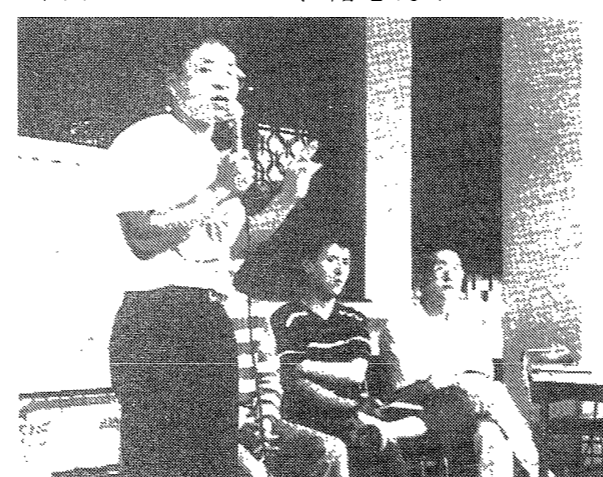
또한 에-결산에 대한 공개특감실시외에 정정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직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제안한 △사업혁신 △조직혁신 △예산구조혁신 △복지동국혁신 등 4가지 과제를 담은 학복위 혁신안을, 파도론의등을 거쳐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복위 위원장 선출방식결정 과 관련하여 대표자들은 직선·간선의 대립구도를 지양하고 현 학복위의 위상과 전체 학생회 구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뒤 추후 의결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진상규명대책결정 과 관련하여 최순호(국교4)총학생회장은 "이번 학복위 문제

해결의 주체는 1만학우들이며 그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 대표자회의는 1차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과 학복위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립·반목등의 자제를 촉구했다.



○학복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9일 열렸다.

총대 학생회비 분배안 개정

특별지원금 폐지-예비비 신설

제25대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야간부4)는 93학년도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을 오는 16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총 7천만원(8월7백50명분)중 제2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6백만원을 제외한 6천7백만원을 가지고 분배한 이번 학생회비 분배안은 각 단과대학

회에 50%, 총학생회 30%, 총대의원회 5%, 동아리연합회 6%, 총여학생회 4% 등이 책정된다.

또한 새로 개정된 예산배분 시행세칙에 의해 신설된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4%인 2백56만원이다.

각 단과대학에 분배된 학생회비는 기본금 2백45만원과 남부자 수에 따른 비례금 1인당 5백77원을 합쳐 △블로그대 2백57만1천원 △문과대 2백87만2천원 △이과대 2백72만4천원 △법과대 2백59만9천원 △사회과학대 2백73만7천원 △경상대 2백56만6천원 △농과대 2백68만3천원 △공과대 3백37만5천원 △사범대 2백90만6천원 △예수대 2백59만2천원 △야간강과 2백86만5천원이 분배된다.

이와함께 각 단과대 학생회에 지급되는 금액중 약 10% 정도되는 원진정수액이 이번학기에는 선거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없었으며 지난학기 사업별로 지급되던 특별지원금도 없어졌다.

또한 공과대학생회의 경우 인원수에 대한 차액 보상 명목

으로 전체예산의 1%인 64만원이 단과대 예산에 더 책정됐으며 야간강과 총학생회에는 3개과 신설에 대한 준비 명목으로 50만원이 더 지원된다.

각 단과대 예산중 기본금 명목으로 총학생회비 1백40만원, 선거비용 40만원, 생활비 15만원, 이월준비금 10만원, 경상비 40만원 등이 분배되며 이중 선거비용 40만원은 제2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생활비 15만원과 중앙기금 생활사업비는 농민·학생 연대사업 주체 연선회의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 추후부 연선회의에서 집행하게 된다.

한편 총여학생회에 책정된 2백56만원은 총여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부 연선회의에서 사용내역을 결정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오는 16일 총대의원실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와함께 제2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단과대 학술제 일제히 개막

각 단과대의 가을 학술제가 어제(14일) 법과대의 '두리재'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이어진다.

『이과대』 13 동리한마당을 오는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

3일간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130명민족대학 사진전, 북한 과학 기술에 관하여, 엑스/그라이 알고 실험, 과학 기술의 본질과 과학도로서의 사명 등의 '상설전시 마당'을 연다.

또한 첫해날인 '여는마당' 둘째날인 '베움마당' 셋째날인 '담는마당'을 갖는다.

오늘(15일)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여는마당에서는 학생 축하 한마당, 라스베가스 쇼, 문예대 공연, 이과대 노래자랑 및 뽕대기 한마당을 갖는다.

둘째날인 16일에는 베움마당을 열어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한 강연회와 전공논문과 재미 있는 과학이야기 등을 주제로 발표회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잊혀져버린 도시락의 맛을 느끼기 위해 과학관 앞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에는 파벨합춤마당과 바둑대회, 오목대회가 치러진다.

마지막날인 17일은 담는마당으로 체육한마당, 놀이한마당 등의 행사를 열어 시상식을 갖고 이과인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고 대동놀이 한마당으로 동리한마당 행사를 마감한다.

『경상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대 축전

첫날인 22일에는 풍물놀이인 '길놀이'로 시작해서 본마당인 개막선언과 노래한마당인 '우리 학인 최고 스타는 너' 등의 릿마당을 가지고 23일에는 앞으로 있을 학자부의 모습을 그려보며 지구·민주·통일의 의식을 일깨우고 건전한 영상문화의 틀을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학술제와 비디오텍 등을 준비중이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축구, 축구부의 체육대회와 단음시등을 끝으로 축전을 마칠 계획이 있다.

『공과대』 제15회 원동대동 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체육대회, 영화상영, 열전 달리는 원동인 등이 있으며 북학생들을 위한 장기자랑 대회가 가질 예정이다.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족구, 씨름 4종목과 여학생 발야구, 교수 대상의 소프트볼 등 3일간의 예선전을 거쳐 23일 결승전을 갖는다.

환경문제와 사회 고발 작품, 공상과학영화 등을 상영하게 될 '작은 영화제'는 행사시작 전인 17일부터 5일간 공대 세미나실(E102)에서 치러진다.

행사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체육대회 결승전과 열전 달리는 원동인이 이은 폐막식에서 O-X퀴즈, 줄타기 등의 게임과 풍물패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사범대』 제8회 학림축전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학림관에서 개최한다.

사범대 전체행정은 20일 학림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림가요제, 21일부터 23일에는 체육대회 각종목예선전, 24일에는 체육대회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하게 된다.

체육대회는 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일대결' 단체전 축구대회, 남학생은 '개단역전' 농구대회, 여학생은 '입수경매' 여자 배구대회를 하고 '유우마시'와 '달리기' 등을 하트런지기 등의 경기를 벌이는 학림공동체 종합행사를 갖는다. 위의 각 종목 우승자는 백상예술제에서 사범대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파벨 행사로는 국교과에서 개최초리학회와 교과사내에서 범위를 정해 '참교육수업'을 하고 '별생기'학회에서는 품비에서 사회학과 직접만든 염색을 판매한다. 소설학회 '세백'은 공개합영회를 통해 연극배우의 삶과 과정을 그린 공동창작작품을 평가, 토론한다.

역교과는 탁본전시회를 축전 기간동안 학림관 3층 상설전시실에서 갖고 노동자행을 통해 올바른 삶을 찾는 동생이야기를 그린 장작노래극 '참된 시작'을 공연하며 폐막식때 편지교류추진위원회에서 김중태 사범대학 역사학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발송식을 갖는다.

또한 교육학과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각색한 연극을 공연하고 참교육 사진과 학회원지를 전시하며 마지막날인 25일 동문선배와 함께 하는 '교육학도의 날'을 갖는다.

수교과는 현강교사 3명의 선배와 일용교사를 준비하는 4학년 2명이 교육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열고 오는 26일 동문체육대회를 한주 마무리짓는다.

남산문화한마당 개막이전인 17일부터 진행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여자발야구, 마라톤 등이 있을 예정이다.

23일에 있을 폐막제는 야간강과 노래대연합에서 노래공연을 하고 마지막 행사로 퀴즈놀이 등을 한다.

『법정대』 법정인 대동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진흥관과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법정대 학생이 하나가 될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고, 무관심해져가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 행사는 21일 배움의 날을 주제로 초청강연회, 전공서적 전시회, 단대신문 발간 등을 하며 22일은 '일련의 날'을 주제로 법정대 동아리 전시회, 공청회, 통일문제 퀴즈 한마당이 펼쳐지며 마지막 날인 23일은 '연이련의 날'로 동아리 공연, 동대 청소, 교수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매일행사로 전통차, 법률상식 전시회, VTR상영, 농수산물 전시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의화관에서 전교생, 교직원, 학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회 축전 '여명'을 개최한다.

행사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5일-초청강연회(주최:한국 의료가 나아갈 길은...), 전야제(의학관 종합강의실 및 뽕대, △16일-의의법정(주최:의료연구회 '발취'), 여성강좌(주관:의과대 여학생회), 열린 학관으로, 퀴즈 아카데미 △17일-종야제(보통 '유부촌' 국제대회회), 불려대회(불려부 Faky) 등이다.

학복위 귀향차편 예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운현·최제4 이하학복위)는 추석귀향차편 차편 접수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앙도서관 앞 임시접수처에서 받는다.

이번 귀향차편의 의의에 대해 학복위 위원장 김운현은 "93학년도 귀향 차편은 향우를 사랑하는 자리가 되고 학복 위 수의계분배와 지방학생들의 귀향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교를 비롯한 숙명여대, 서울대학교 학복위와 함께 주관하는 이번 추석귀향차편은 총20개도시를 포함하는 기점편과 도시락비를 포함한 4천원이며 오는 28일 9시 30분 본교운동장

경주캠 제9회 방송제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국장=최규철·기초과정)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원효관 중정에서 "나, 자꾸 그랄래!"라는 제목으로 제9회 방송제를 가진다.

올해 방송제는 방송국 개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열 번은 일그러지니"라는 전체 제목으로 14일 자연과학관 음악당에서 전야제, 15일 원효관 강당 1에서 김영삼 정권의 언론정책 및 보도성향이라는 주제로 초청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학과소식

- 경제학과
 - 학회지 '늘푸른4호'의 '글마당'에 실을 원고를 오는 17일 까지 모집한다.
- 이과대학 무역학과
 - '무역누리'에 '과목선 사용기'를 마련을 위한 일일포스터를 오는 23일 신라호텔에서 가진다.
- 경주캠퍼스 정보산업학과
 - 9월18일 경기대학교에서 있는 M-IS 연합학술제에 참여한다.
- 행정학과
 - 학회지에 실을 글을 10월9일 까지 모집한다.

합인 캠퍼서 동약학신
이러하자!

난 모른다

○...동약학신의 영원한 휴식처인 백상재의 집, 다량관 2층 복리수동 여러군데 매점이 약속이나 한도 '10% 할인' 캠퍼서 동약학신에 없던 영업을 해 학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

○...불교대 한 학우의 출가 소식으로 불교대 가 머물렀는데, 사인인즉 불교학과 학생회장이 사유표명도 없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출가한 것.

이보다 더 큰 사건은 관한 대행으로 밝은 회장이 정식철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불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이제는 달려져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학우, "정치판도의 리가 크다는데, 마이클을 사용하지 않은 교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한 학우 '담까지 없어서 기성회비를 냈는데 학교시설도 이제는 달려져야 할 때가 아닐까?'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산업자동화분야

●전기·전자분야

●서비스설비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성산전자동화분야

- 로봇·PLC·CNC
- 인버터·블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 교통신호시스템
-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설비분야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주차설비
- 지게차
- 차량관리기기
- 자판기
- 전동공구 등

전기·전자분야

- 초고압설비
- 배전설비
- 고저압기기
- 변전설비
- 제어계측기기
- 광반도체 등

환경·에너지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
- 전기발전기
- 저온냉동시스템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
- 태양광발전시스템
- 열병합발전시스템
- 태양열은수기
- 추출기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

金星産電 部門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여의도) 금성 트윈타워
대표전화 (02) 787-1114

풍자·인간미 담은 코메디예술

극단 '수레무대' '스카펄의 간계'... 즉흥연기 선배

“줄속 제작자요 다만 연극계에 숨어드는 상업적인 승성으로부터 젊은 연극인들이 멀어선 것일 겁니다.”

연출자 겸 극단 수레무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웅(연영 88졸)은 문은 창간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지난 10개월간의 모습이 담긴 앨범을 펼친다.

작년 10월31일 창단한 이후 2개월간의 작품연구 및 분석, 경남 장포 마을에서의 4개월간 합숙훈련, 그리고 다시 4개월에 걸친 경남 일대 순회공연 등 한 작품에 쏟은 정성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사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극단들 속에서 저희 수레무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매력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기 초년생들이

보여주는 열정, 바로 그것뿐이지요.”

연출자인 김태웅을 비롯하여 본교 연극영화학과 출신 동문·재학생 8명과 서울 예술전문대학 연극과 3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진 극단 수레무대가 창단공연으로 선보인 작품은 ‘스카펄의 간계’이다.

이극을 통해 ‘스카펄의 간계’라는 아주 독특한 연극 형식을 보여 주게 되는데 이것은 코메디 예술을 뜻하는 말로 직업적인 코메디 전문극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극 형식을 말한다. 배우는 대강의 줄거리만 있는 대본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즉흥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풍부한 기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런 배우의 능력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속에서 극은 그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극 형식의 독특함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은 배우들의 등·퇴장 방식이다.

마치 기존의 틀을 깨기라도 한 듯한 상하등·퇴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또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한쪽 줄을 타고 배우가 퇴장하게 되면 반대쪽 줄에 매달려 또다른 배우가 등장하게 되고 퇴장기를 하듯이 한 배우의 퇴장에 이어지는 또 한 배우의 등장과 공중회전에 의한 퇴장등은 극을 생동감 있게 끌고 갈 뿐 아니라 새롭게 시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테렌스의 ‘포르미오(Phormio)’를 그 원작으로 하는 ‘스카펄의 간계’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희극 배우인 몰리에르의 작품이다.

이에 대해 김태웅은 “원작의 재미



◇극단 '수레무대'는 본교동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극을 선보였다.

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몰리에르 특유의 풍자성과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극입니다”라며 몰리에르의 생애와 작품성에 대해 논한다.

극을 이끌어 가는 중심내용은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 반대하는 두 젊은이가 결국 자신들의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젊은이의 이름은 옥파브와 레안드르, 그리고 스카펄은 바로 레안드르의 하인으로서 슬수와 잔여에 능한 인물이다.

(東)

영화의 퍼러독스 라이트감독 데이브 대통령소재로 복지정책홍보



◇서민 데이브는 얼굴때문에 우연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 영화 역사상 미국 할리우드의 오락영화만큼 정부의 정책의지에 부합되는 사례가 없다. 할리우드 영화와 정치의 결합은 영화가 순수한 오락이라는 우리의 소박한 편견을 단숨에 깨어버린다.

루즈벨트 시대의 미국은 대공황에 직면하여 얼핏과 굶주리는 민중의 분노와 사회적 동요를 잠재우기 위하여 관상적이고 호화로운 유지권과 멜로드라마로 현실을 도피시켰다.

2차대전에는 연합국의 승리를 위한 프로파간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윌트 디즈니의 민화는 동심에까지도 파고드는 최고의 극작물이었다.

이 영화는 그러한 보편적인 정서의 공감대를 건넨다. 가파 대통령의 부패정권의 모험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당해야만 했던 보편적인 악몽과 집단적인 공포심리를 회상시켜 나간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그런 나쁜 영화를 주기만 하는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영화의 문제풀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까울 것인가. 미국은 또 하나의 허상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 영화를 볼 한국 관객들이 웃고 떠들며 박수를 치는 것이 위대한 안위인데 말이다. 우린 미국영화를 알만큼 우리식으로 소화하는지 묻고 싶다. 그런 참 중요한 영화적 사고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처음이며 또한 영원한 것이다. 영화속에 인성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대담 프로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나 해외심장한 말을 던진다.

“사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대통령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겠다.” 영화의 사회비판적인 기능에 대해 한 마디 화두를 던지며 영화는 끝난다.

정재형
(연극영화과 교수·영화평론가)



사람이 그리운 보육원 아이들

자비실천모임, 광명보육원에 사랑의 손길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돈을 넣어주고, 아이들은 아주머니에게 자리도 비켜주는 김한성(선학 3)은 본교 선학과와 불교학과 학생 그리고 기가지리 8명이 찾아간 경기도 장흥 광명보육원을 도와주고 있는 ‘자비실천 모임’의 회장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작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자비실천모임은 올해 초부터 광명보육원을 찾고 있다.

“우린 가서 일만 하다가 올때가 더 많아요. 밭에서 풀매고 나면 하

살게 된다.

국립학교 4, 5학년이 되면 가출을 하여 몇달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그래도 크게 비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954년 대구에서 전성고아들을 거두어 키우던 서북호 할머니부터 시작된 광명보육원은 서남의니의 머느리로 이어지고 다시 손주머느리 김영자씨에 까지 이어져 지금은 80살이 된 김영자씨가 원장이다.

원장이 연로한 관계로 대신 일을 많이 하고있는 부원장 김정수씨는 직업훈련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진실된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90년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을 겨울 연탄질이라 때문에 골치 좀 아픈 거 같네요. 너무 낡아서 연료를 넣어도 파도때지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흔쾌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

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도용이 되지 못한다”며 주위의 걱정 담긴 시선을 거둔다.

“선생님들, 누나들이 잘해줘요. 가끔 형들하고 싸우기도 하지만요.” 보육원에 온지 사흘 됐다는 이태순(8)군은 부원장 김정수의 마음을 아는지 표정이 밝기만 하다.

가까운 송추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불일성도 많았다. 기자에게 “사건 적어달라”며 쫓아다니기도 하고 평소엔 만지지도 않던 호미를 들고 자비실천모임 사람들과 함께 풀도 맨다.

넓은 밭을 일구고 있는 학생들, 웃고 먹거리를 들고 찾아온 외국인 부부, 한국말도 잘하는 이태순(8) 아이들은 자비실천모임 사람들을 따랐다. 외로운 아이들이기에 웃고 먹거리보다는 ‘사람이 더 좋은가보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을 보던 부원장 김정수는 “베고프지 않을까, 병이

공연안내

—2112

◇임드라마...1989년부터 국립극단이 기획한 연극, 외국제작진과 국립극단의 연기가 조화를 이루는 라신노의 문학작품을 연극화했다. 국립극장 소극장. 9월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출구는 시간여행...광주민주항쟁에서의 한 피해자와 나타나지 않는 기해자를 연극속의 또다른 연극으로 재조명한다. 문예회관 소극장.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766

총수간의 회동후 급진화에 관한 연관성 의혹은 억울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노동부는 노동자를 일차적으로 고용한 사용자 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로자 파견법등을 입법하고 있다. 이 법들은 새로운 의미로 “중간착취”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는다. 문민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 △각계의 이해대립이 연기사유가 된 노동법 개정제정의 이해때문에 연기됐다는 분석이 오히려 적절하다. 문민정부의 보수기조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각계의 이해범주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더 큰 악법은 제정의 촉구에 의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문민정부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결투쟁’이 새삼 절실하다.

(水)

재벌입김

들과 청와대만찬을 같이한 김영삼대통령은 현충원 파업과 관련하여 전노협, 현충원 주요간부들을 수배, 구속했다. 이후 지난 8월 24일 급기야 노동부는 각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노동법개정을 내년 적절한 시기에 개정 하겠다는 연기방침을 내놓았다. 긍정적으로 논의돼던 노동법개정이 대통령과 제법

조진영은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등을 추가로 요 구했으며 이에 대한 문민정부의 검토자세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88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인의 ‘외종’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야 말았다. △지난 7월2일 재벌총수

1993년 근대적 노동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87년 11월 개정되었다. 주자하시피 87년 한국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된 노동자 대투쟁이 진행되었던 때다. 이후 88년 11월 5만여노동자들은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인 노동법개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정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개정공은 좌절되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노동법 개정의 꿈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지난 5월에는 노동부장관이 제3차 개인법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

“포니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국산차 수출1호로 애카도르에 상륙한 5대의 포니. 18년간 약 90만대를 팔았으나 아무런 결함없이 운행되고 있다. (1993년 4월 22일, 애카도르 수도 키도에서)

중남미지역수출팀장 이정태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 다.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최초의 국산모델「포니」를 만들고 난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지만 우리 차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때여서 고비고비마다 벽에 부딪히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국산차 수출1호로 애카도르에 처녀수출했던 다섯대의 포니— 지금 18년을 뛰고도 끄덕없이 달리고 있는 그「포니」는 다음아닌 오늘 세계 160여개국에 250만대 이상을 수출하게된 품질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포니가 사원이었던 제가 어느덧 포니의 연륜만큼이나 고참사원이 된 지금, 또다시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를 후배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합니다.

“포니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